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①林連學副會長 宋會長을 代理하여 프랑스88빅토리아 전시회 참가 : 6·1∼6·3日까지 프랑스 앙죠市에서 개최되는 생약에 관한 전시및 세미나에 달맞이商事代表이며 本會副會長이신 林連學氏가 參加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목적은 프랑스 앙죠地方에 성행하고 있는 약초재배법을 배경으로 한 전시회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며, 참가국은 약 13개국 30개업체에 달하고 있다한다.

林副會長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하여 국내 생약분야 현황소개와 아울러 수출시장개척및 서구라파 지역의 생약분야 정보수집 또는 앞으로의 교류부분을 개척하는데 주목표를 두고 참가할 것이라고 함으로 생약재 수출부문에 기대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편집부제공〉

②生藥材生産및 流通現況에 對한 教育協調 : 농촌진흥청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자교육에서 사무국장이 출강협조(6·11日)

· 산림청임업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독림가들에 대한 산지개발과 생약재배전망등 교육에 사무국장이 출강협조 (6월중순)

③입산채취회원증 발급절차 활용 당부 : 최근들어 자연생약의 출하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자연보호시책의 강화로 우리나라 산림지대에 산재하고 있는 부존자원중에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생약재가 계획적인 보속조치가 없이 마구잡이 도취로 점차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 집약된 여론이다. 4、5년전만해도 협회산하에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입산채취회원증을 발급받은 채취회원들이 그래도 4∼5백명 정도는 되어 계통출하량도 항상 10%를 오르내리는 현상이었지만 이제 이것마저 기대할수 없게되었다. 그 근본원인은 감독권이 취약한 지방의 채취자들이 합법적 수속없이 무단출입하여 도취가능하며 자유로이 출하할수 있다는 방임의식과 얼마간의 회비를 내어가며 까다로운 합법적수속을 구태여 밟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기득권이 있는 입산채취회원제도를 제정비하여 다음에 그 수속절차를 명시하니 각급 분사무소장은 이를 채취희망자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지방산림계와의 유대협조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수속절차

①지속적인 홍보로서 지역별 입산채취회원 희망자를 확보토록 할것

②분사무소장이 명단을 취합 동·리거주 산림계에 제출 상호협의후 산림계의 추천을 받을것 (산림계로부터 먼저 추천을 받아도 무방함)

③입산시 준칙 (협회시달)을 철저히 교육시킬것

④입산채취희망자 명단과 산림계의 추천서를 첨부 협회본부에 제출 입산채취회원증을 발급받을것

⑤입산전에 보속생산방법과 계통출하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것

◇충북지부 녹색회를 마치고

▲忠北支部

충북지부 녹생회(지부장·이종철)에서는 지난4·30일 청원군 소장 최종훈氏 主管으로 협회본부 송경태, 임연학 신임회장단의 초도순방을 맞이하기 위한 전체녹생회를 소집하고 해지역과 본부간의 유대강화및 금년도 생약업계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해지역 주산品目에 대한 판촉활성화에 대한 상호협조방안과 최근 침체상태에 있는 입산채취회원제도활용을 적극전개하기로 하였다.

▲慶南支部

경남지부(지부장·김정만)에서는 지난5·3일 지부장 主管으로 본부 신임회장단(송경태회장, 임연학부회장 부부장일행)의 초도순방을 맞이하기 위한 月例녹생회를 고성에서 개최하고 향후 자체발전대책을 숙의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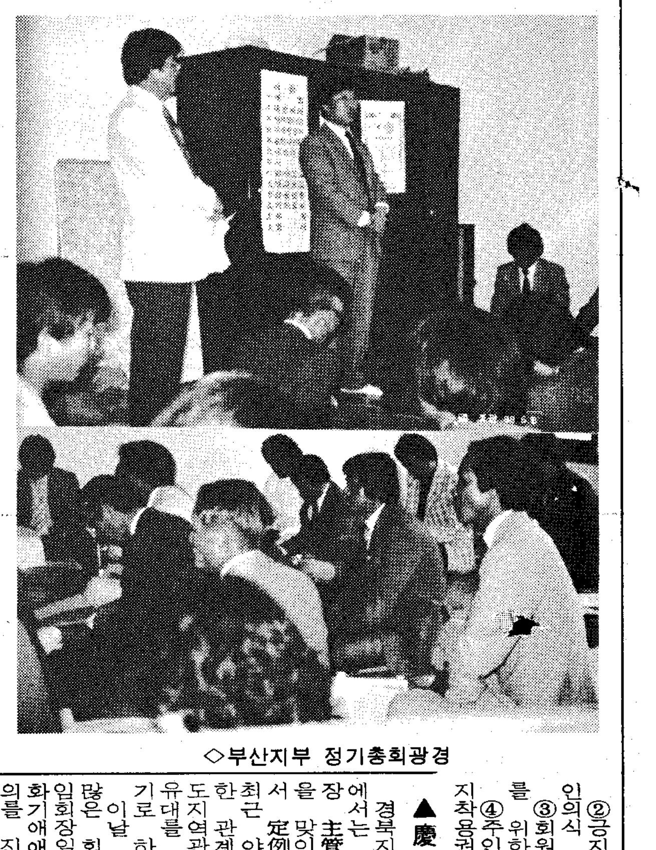
특히 이날은 본부회장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①자체녹생회발전을 위한 생약정보의 신속한 교류

②유관부처에 대한 단체로서의 홍보활동전개

③주기적인 통신망연결

④전회원단합및 유대강화등을 위한 하기연수교육실시



◇부산지부 정기총회광경

▲忠南支部

충남지부(지부장·문대규)에서는 지난5·8일 지부장 主管으로 본부신임회장단의 초도순방을 맞이하기 위한 定例녹생회를 天安에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금년도 해지역 생약업계 발전책을 논의하였다.

①생약건조장의 도내추가 시설배정건의

②도와 본부 공판장간의 활성화를 위한 차선적인 대책강구

③지역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하기수련대회개최

④모든 회원의 애회심고취를 위한 「뺏지」착용 장려등

▲부산직할시支部

부산지부(지부장·朴吉夫)에서는 지난5·15일 본부 신임회장일행의 초도순방을 맞이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총회에는 기간중해 지역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분야발전에 기여도가 많은 정삼조 중앙회원에게는 모범상이 권순직 진구소장과 이차호 중구소장에게는 근면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특기사항에는 자체규정상으로 실시된 支部長선출에서 朴吉夫현支部長을 계속連任토록 의결하였다.

그리고 해지역과 본부간의 유대강화및 공동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①협회본연의 입무기능존수 및 발전

②긍지와 자부심으로 주인의식 고취에 노력

③회원 상호간의 업권보호를 위한 상호연계조치강화

④주인의식강화를위한 뺏지 착용권장

▲慶北支部

경북지부(지부장·안승관)에서는 지난5·16일 지부장 主管으로 신임회장일행을 맞이한 가운데 안동에서 定例녹생회를 개최하고 최근 야기된 약간의 불편한 관계를 상호배제하고 도지역관하회원과 본부와의 유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례없이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신임회장일행을 맞이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①새로운 각오로 지역과 본부간의 공동발전책 강구

②생약분야발전을 위한 각종자금지원책을 관계부처에 건의 반영노력

③지역회원상호유대강화를 위한 하기수련대회실시추진

④생약재취급규격화문제현실화방안강구 공동노력 (예 규격화된 생약재상품을진열전시등) 〈편집부제공〉

〈독자투고 1〉

비만증은 난치병인가

뚱뚱하게 살찐사람이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과거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몸이 편한 사람들이 살이 찌기 때문에 뚱뚱하다함은 富의 상징이 되었고 또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후덕한 인상을 주었던것도 사실이다. 더우기 관료사회에서는 체구가 당당하다는 것은 지식이나 덕망이 있고 없음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고위지도자로서의 안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뚱뚱해 지기를 원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남보다 뚱뚱해질 것을 원하여 억지로라도 많이먹이려고 애쓰던 웃지못할 시절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이 야윈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오인되어 마른 사람들은 살찌기를 원했고 부러워하기도 하였으며 뚱뚱한 사람은 마른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했다. 뚱뚱한 사람을 예찬하여 장군감이니 혹은 사장배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여건 변화로 현재에는 잘먹고 못먹고를 따질때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살고 잘즐기며 어떻게 멋있게 사는가가 문제가 되고있다. 건강상식이 보편화 됨에따라 날씬한 체격이 대우를 받게되니 너도나도 살빼기운동에 열중하여 헬스크럽이 호황을 누리고 각종미용식이 범람하는 세상이되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건강상태에서 생기는 단순비만과 어떤 특정질병으로인하여 발생되는 병적 비만이 있다. 병적 비만은 전문의사에 의해 진단되고 치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외로 하고 단순비만은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합병증이 문제라고 한다. 살찐사람은 보통사람보다 병을 일으키는 소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옛성인들은 경고했다. 주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관절이상、통풍、여성생식기능등에 이상이 유발된다고 한다. 단순비만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과식을 삼가할 것이며 꾸준한 운동이 요구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다. 비만을 두려워하여 음식을 몹시 가려서 섭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꼭 그럴필요는 없다고 한다. 요는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다만 전체의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결코 특별한 미용식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설사약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날씬해 지기는 커녕 잘못하면 없던병도 생겨난다고 한다. 비싼 댓가를 치른 운동(헬스)후에도 운동했다는 자신감에서 안심하고 입맛대로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안양시소장 이봉선제공)

〈독자투고 2〉

목단재배에 대하여

▲목단재배를 史的으로 본다면… 栽培의 동기는 꽃을 觀賞하는데서 시작되었다. 唐나라 高宗때(649년 即位) 후원에다가 栽培觀賞함으로써 점차 珍貴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9世紀에 접어들면서 그 改良에 박차를 加하게 되어 歐陽修의 「洛陽牡丹記」에는 31品種 其後에 이르러 黃色種을 포함하여 132種에 達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花色의 原種은 紅紫色이였던 것이 園藝的으로 紅·白·淡紅、朱紅、眞紅、紫暗紅、黃色등의 各品種이 生産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꽤 오래전에 渡來하였다고 하며 一說에 724年頃 日本의 高僧空海라는 分이 中國으로부터 갖고 돌아와서 全國 수개소에 재식하였다고 傳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연유로 日本奈良에서의 목단皮 生産은 여사적으로도 오래되었고 長谷寺、石光寺、當麻寺등과 같은 절은 목단의 各所로 有名해졌으며 特히 日本 江戶時代(德川幕府時代)에 盛行하였다고 한다. 明治시대부터는 英·美國등에 수출을 하여 日本品種이 매우 우수하다는 評을 들었다. 그후 苗의 生産은 大阪府로부터 新潟縣—島根縣으로 옮겨져 新潟縣村松市、同縣의 新津市등에서는 60萬株의 生産이 되었다는 記錄들이 남아 있다.

▲原植物

牧丹은 中國의 寒冷地方이 原産입으로 日本에서도 低溫地帶가 적지로서 年間 不均 15℃以上의 地方에서는 적지보다 發育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으나 栽培는 温度因子만으로 決定되는 것이 아님으로 日本列島를 잘 탐사한다면 적지는 얼마던지 찾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牧丹은 높이 0·5∼1·8m 정도되는 落葉低木으로 分枝한 가지는 굵고 잎은 互生하며 二回三出또는 2回羽狀複葉으로 小葉은 2∼三裂、卵形 또는 針形이며 끝은 뾰족하다. 五月頃에 가지끝에 大形의 꽃이 한개 핀다. 花弁은 八枚이상으로 白·紅·紫등 色의 변화는 많으나 薬用種은 꽃이 淡紅色 또는 紅紫色으로서 뿌리가 特히 굵고 길다. 뿌리는 굵은 棒狀으로 外面은 暗褐色으로 되어있다.

▲栽培

1、土地 : 牧丹은 햇빛이 잘 들고 排水가 잘되며、地下水가 높지 않은 곳으로 乾燥氣味가 있는 땅을 좋아한다. 토양은 비옥해야 하며 土質은 粘質土가 가장 적합하다. 埴質양호 砂質양토등도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中國에서는 夾砂土 또는 泥砂土등 어느쪽도 砂質이 섞인 땅이 最高 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토양에서는 잔디나 落花生은 잘 되지만 토란같은 감자종류나 쌀은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連作을 싫어함으로 3∼5年의 간격이 필요하다. 牧丹은 뿌리가 얕은 植物이기 때문에 耕土가 깊이 않아도 습기가 적도라면 上作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 中國安徽에서는 60∼70cm의 깊이에 3回정도 갈아엎고 물이 根부분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면 매우좋은 수확을 올릴수 있다한다.

※이글은 東京生藥協會誌에 게제된 약용식물재배목록에서 발췌번역한 것임.

〈다음호에 계속〉

〈特種紹介〉

▲農村高所得事業推進(特用作物)

品種(第1次) : 天然纖維質原料

品種(第2次) : 커피代用食物(外貨50% 節減)

生産性 : 年3毛作(1回播種으로 無制限自然繁植)

播種時期 : 가을、봄 2回

與件 : 農工團地 開設以前에 우선 自體組合構成

展望(販路) : 自由賣買및 組合에서 全量收買豫定

(안양시소장 이봉선氏제공)

農藥 살포회수 분량정확히 지켜야

병충해 방제용의 농약이 다양해지고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법을 혼동해 치명적인 사고가 생기는 수가 많다.

이같은 사고에 대비해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우선 농약관리법에 의한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살포회수와 분량을 정확하게 지키는것이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경험에 의존해 농약을 사용하는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농약을 많이 쓰는 농사철을 맞아 농약사용법의 주의점을 알아본다.

농약은 해당약품이 적용작물표시에 맞는가、2∼3종의 혼용살포가 가능한가 신체이상증세가 나타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등을 꼭 미리알고 다뤄야한다.

또 제초제나 살포제는 특성을 알아 적정량을 쓰고 해당농약에 맞지않는 토양이 아닌가를 확인해야 작물이나 흙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가능한 한 농약의 혼합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즘 농약의 인력부족과 임금의 상승으로 혼합살포가 많아지고 있는것이 현실.

농약의 혼합사용시는 먼저 △혼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희석배수를 정확히 지키며 △가능한 한 두종류만 섞어쓰고 △표준혼용살포량을 확인해 안전을도모해야 한다.